

특권사회



신봉기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4급)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가룟 유다는 영악했다. 예수를 이용해 치부하고 권력을 탐하다가 결국 목을 매어 자살했다. 생전에 그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의 발을 닦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며 마리아를 힐난했다. 셈에 밝았던 도둑 유다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정의를 외치는 자는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다. 언제부턴가 글이 아름다운 자들의 삶의 궤적을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에게서 유다의 역설(逆說)은 통했다. 그들의 면종복배(面從腹背)를 알지 못한 독자들만 환호할 뿐이었다. 글로 흥한 자들이 글로 망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법조인들은 타인의 삶을 산다. 피해자의 삶도 살고 가해자의 삶도 살아야 한다. 매번 바뀌어가는 기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이 정의인가에 항상 목말라 한다. 정의를 좇다가 언젠가부터 자기만의 정의를 만들어간다. 법조인들도 감정노동자다. 돈과 권력에서 자유롭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법조인은 특권의식을 가져도 좋다. 물론 그들이 가진 전문적 법률지식을 법률소외자들에게 배풀 때 그 특권의식은 가치가 있다. 고급 외제차를 몰아도 좋고 휴가 때마다 특급호텔을 전전해도 좋다. 그러나 돈과 권력으로 1% 집단을 지향하고 오만방자해진다면 그런 법조인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그들은 오로지 돈에 혈안이 된 자본주의의 노예들일 뿐이다. 돈으로 권력도 사고 범죄도 감면시키고 또 주변에 득실거리는 날파리들을 부리는 기업가들과 공생하는 일부 법조인들이 갖는 우월감은 저급한 천민자본주의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법조인의 특권의식은 자기정의(自己正義)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배려일 수도 있고 아집과 오만일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배려의 법조인은 무의식적 배려 자체가 특권의식이다. 따라서 특권의식을 비난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집과 오만의 법조인이 선서를 잊고 돈과 권력을 좇을 때가 문제인 것이다.

진경준과 최유정은 무모했다. 그들은 선서를 잊었고 그저 직업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권력으로써 특권을 추구하고 또 그것은 먹혀들었다. 이들로 대변되는 비상식적 법조인들은 우리 사회에 언제나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잊지 못할 김홍섭과 조영래가 있다. 또 드러내지 않는 인권변호사들이 도처에 있다. 그들이 있기에 아직도 안도한다. 정의로 포장한 가rot 유다의 그릇된 주장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활개쳐서는 안 된다.